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15
2015.0910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커버스토리

홍수로 집과 농지가 잠겨버린 미얀마에서, 이재민들은 구호물자를 받으러 오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때 마을 공터였던 곳에 쪽배를 타고 삼삼오오 모여 지원물품을 받아갑니다.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여행객에게 구걸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P07 아이들에게 선물한 새 교복



P14 긴급구호 지원물품을 배에 싣는 미얀마 주민들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계스와리(인도)**
우리 마을 꼬맹이들의 미래, 우리가 사수한다 - 심애남
- 07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꽃이 된 아이들 - 아진옥
- 14 **긴급구호**
멈추지 않는 빗방울 - 편집부



국내소식

- 18 **함께 나누는 사랑**
안산 다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 이동림
- 19 **함께 하는 사람들**
거리모금에서 느끼는 나의 마음 - 임주미
목포JTS 거리모금 활동을 시작하다 - 남선진



활동터소식

- 24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중국/인도/필리핀
- 28 **후원인의 소리**
- 29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5. 10. 5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다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김명순,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아이들의 구걸 방지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들



우리 마을 꼬맹이들의 미래, 우리가 사수한다

- 구걸방지 마을 청년회 결성

여행객들이 몰려오던 8월의 어느 날,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두르가푸르 마을과 자그디스푸르 마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티 타임 초대장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차와 함께 나누어진 화젯거리는 가볍지만은 않았다. 늘어나는 여행객을 따라 다니며 구걸하는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인도하는 일에 두 마을의 청년들이 뭉쳤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심애남 활동가



요즘 들어 수자타 아카데미 앞에 있는 전정각산에 여행객들이 심심치 않게 몰려온다. 성지순례철이 시작되었나 보다. 수자타 아카데미 앞은 관광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미 한산함을 잃은 지 오래다. 어제도 오늘도, 학교 밖에는 커다란 관광 버스 두 세대가 나란히 도착했다.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서 전정각산 중턱의 유영굴로 올라갔다. 이 낯선 일행의 옷차림을 보면, 스리랑카나 미얀마 같은 외국이나,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여행객들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자신과 눈을 마주쳐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중 몇몇은 가마에 여행객을 얹혀 가기도 하고, 몇몇은 여행객을 따라 다니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뭔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러 얼굴이 와서 뭘 좀 달라고 자꾸 소매를 붙잡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하셨다고 하는 불교 성지 전정각산과 부처님이 머무셨던 유영굴의 인상은, 파란 하늘 아래 아름다운 돌산의 자태, 그리고 먼지와 낡은 옷을 걸친 걸인들로 뒤죽박죽이다. 성지에서 참배를 마친 여행객들은 왔던 버스를 타고 돌아간다. 그때부터 소동이 시작이다. 여행객에게 뭔가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스를 둘러싸고 창문이며 출입문을 애타게 두드린다. 여행객들이 창문 너머로 비누나 과자 몇 개를 던져주면, 서로 가지려고 밀치고 싸우는 이수라



관광객이 탄 차량에 몰려들어 구걸하는 사람들

“이제는 학생들이 여행객 쫓무니를 쫓아다니느라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니,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일들이 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장이 된다. 버스는 새까맣게 물려든 사람 때문에 떠나질 못해서 속이 타는 듯, 경적만 마구 울려댄다. 조금씩 거북이걸음 속도로 밀고 나가면서 차가 완전히 마을을 벗어나면, 그제야 흙먼지가 차츰 가라앉는다. 오직 학교 교문과 담장만이 이 어수선한 소동으로부터 교정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

쁘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매일 보고되는 학생 출석 보고를 유심히 점검했는데, 7월 말부터 조금씩 학생들의 출석률이 줄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일주일 정도 반짝 줄어들곤 하는 수확 철은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출석률이 저조한 건 무슨 뜻일까?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행객이 부쩍 많이 찾아오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의미였다. 학생들이 여행객들에게 구걸하느라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와 아빠도, 할머니와 이웃집 형까지 모두 나가서 여행객들을 따라다니며 구걸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리로 발길이 끌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다 동정심 많은 여행객에게 돈 한 푼이라도 성공적으로 얻어 냈을 때의 그 성취감이란! 집에 보탬이 되고, 엄마에게 칭찬도 받고, 즐지에 작은 꼬마 영웅으로 비상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매번 계속되니,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굶더라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이들의 구걸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문제로 교장 선생님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농사일 때문에 학교를 빠진 학생들은 농번기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여행객 쫓무니를 쫓아다니느라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니,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일들이 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집집이 방문해서 학생들을 직접 데려왔다. 그러나 구걸을 나서는 학생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일일이 데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됐다. 매일 학교 강당에서 집에 가기 전에 종례하는데, 선생님이 “어제 구걸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솔직하게 손을 번쩍번쩍 든다. 손을 든 아이들은 앞으로 불러 나와 토끼뿔 벌을 받고는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비록 바로 다음 날 다시 구걸하러 갈지언정 그 순간의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했다.

수자타 아카데미 학교운영팀 활동가들은 두르가푸르 마을과 자그디스푸르 마을에 사는 교사들에게 각 마을의 성실한 청년들을 추천받고, 그들에게 티 타임 초대장을 띄웠다. “아직도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차와 과자를 드시러 오세요.”

8월 27일, 동참 의사를 밝힌 청년들이 JTS 센터로 찾아왔다. 두르가푸르 마을에서는 마을 어른인 사르뻬지와 마을 리더, 청년 12명이 참석했고, 자그디스푸르 마을에서는 지바카 병원 스태프 까미스왈지와 마을 리더, 마을 청년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교장 선생님의 간단한 인사 후, 한국에서 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 중 두르가푸르 마을에 사는 디네스씨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영상을 통해 구걸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생이 아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 디네스씨와, 교사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다. 영상이 끝난 뒤, 까미스왈지의 연설이 이어졌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지금은 우리가 마을을 이끌고 있지만, 그다음 세대인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뒤를 이어 나가야 한다. 멀리 봤을 때, 지금 아이들이 구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까미스왈지의 연설에 24명의 마을 청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다.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는 청년회 참가자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며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아이들이 구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은 호기심 덩어리이다. 외부인들을 구경하러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구걸로 뭔가를 받는 걸 보면 자기들도 받고 싶어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구걸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마치 마을의 문화처럼 되어버렸다.”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구걸을 못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학부모 회



“훗날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고 남에게도 큰 힘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걸 방지 방안을 발표하는 중

의를 소집하겠다.”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지 말고, 정 주고 싶으면 학교에 기부하라는 간판을 만들겠다.” 등 등 의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그 외에도 학교 다닐 나이인데도 공부하지 않고 구걸하는 아이들을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기숙 생활을 시키며 가르치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구걸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저 뭔가를 받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밖으로 자주 벗어나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먼저 보냈던 마을 청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뼈저린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학교 공부가 당장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훗날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고 남에게도 큰 힘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애타는 남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흥미 가는 쪽으로 쉽게 기울어져 버린다. 회의 다음 날 아침, 두르가푸르 마을의 한 청년이 구걸하던 꼬마 한 명을 붙잡아 교장실로 데려왔다. “교장 선생님, 박트망라아데미 (구걸하는 놈) 잡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지도 교사에게 학생을 인도했다. 순진하기만 어린 학생은 구걸하다가 갑자기 학교로 끌려와서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울고만 있었다. 이 꼬맹이는 선생님의 지도로, 오늘 하루 알차게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배움이 쌓이면 이 학생의 미래가, 마을의 미래가, 더 나아가 동게스와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다.

발루드 학교에서 교복입은 아이들과



꽃이 된 아이들 - 학교지원 프로젝트 2번째 - 이번엔 교복이다!

지난 6월 부키드논 주 15개, 라나로 델 노르테 주 5개 학교에 문구류 지원 이후, 8월에는 부키드논 주 12개 학교에 교복지원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기본 데이터를 받고, 지원물품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나누어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교복 지원! 초짜 활동가들이기에 실수도 잦았지만, 교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보면서 몽클해지는 마음은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이진옥 활동가

민다나오는 필리핀 남쪽 끝에 자리한 섬으로써, 종교, 이념, 차별로 인해 갈등이 빚어져 지금까지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이다. 필리핀JTS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민다나오 섬에서 문맹 퇴치와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학교건축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4개 주에 49개의 학교를 건축하였고, 마을개발과 학교관리 및 교육지원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력 부족으로 매년 해오던 학교지원 사업이 부진했었다. 그러다 올해 초 무려 6명의 신규 활동가들이 필리핀 민다나오 JTS에 투입되면서 학교지원 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었다. 지난 6월부터 부키드논(Bukidnon) 주 15개 학교와 라나오 델 노르테(Lanao del norte) 주의 5개 학교에 문구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교실증축 준공식을 앞둔 만타부(Mantaboo) 학교부터 교복지원도 이루어졌다.

나는 학교지원 업무를 맡아 6월에 문구 지원을 진행했었다. 그때 이미 주요 학교들을 다 돌아본 후라, 교복지원은 사전준비만 잘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처음 한 일은 창고에 쌓여있는 교복 상자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교복 4,200여 벌이 담긴 상자들이 한 벽면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런데 웬걸? 어떤 상자에 어떤 치수와 어떤 성별용의 교복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다행스럽게도 금방 내용물의 목록이 담긴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 너무 다행이었다.

다음 혼란은 만타부 교복을 준비하면서 찾아왔다. 학생들의 키가 적힌 명단을 받긴 했는데, 어떤 키의 학생들에게 어떤 치수의 교복을 줘야 할지 대책이 안 섰다. 우리가 가진 교복에 표시된 치수는 S부터 XXL까지였다.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작다고는 하는데, 한국 아이들의 치수도 감이 안 오는 마당에 추측조차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변의 도움을 얻어 나름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

몸이 마른 활동가 등 주변 분들에게 교복 입어보기를 요청하여, 이 정도면 아이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거라는 확인을 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만타부로 출발했다. 서툰 영어로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교복 분배를 하기 전까지는 제법 순조로웠다. 노란색과 파란색 체크무늬가 들어간 셔츠에 감색 하의를 갖춰 입은 아이들은 너무나 화사했다. 내 마음도 화사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 유치원생 아이들의 교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 교복은 멜빵이 있어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지만, 남자 교복은 바지를 움켜쥐지 않으면 그대로 쑥 내려가 버렸다. 벨트가 있어야 한다고 일러주는 것이 내 나름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뻘뻘 났다.

교복이 너무 큰 아이들은 어찌하든 방법은 있었다. 그러나 교복이 작은 아이들은 도무지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제일 큰 XXL 치수도 작다는 아이들은 억지로 꺼

입어야만 했다. 여기저기서 치수 교환 요청이 들어왔다. 동행한 활동가들과 열심히 교복을 교환해주는 와중에 선생님께 결석학생들의 명단도 챙겨 받았다. 시간은 자꾸 흘러 교복을 나눠 준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돌아오면서 만타부에서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열흘 후면 다물록(Damulog) 시 순회가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다물록 시는 JTS 프로젝트로 1개의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14개 학교가 건축되었고, 보건사업 및 마을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다.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13개 학교 지원을 5박 6일 동안 소화해 내야 하기 때문에, 다물록 시 교복지원이 결정된 순간부터 긴장하고 있었다.

우선 학교별로 학생들 자료부터 요청했다. 학생들의 키를 요청했는데,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나름의 기준으로 측정한 치수를 보내왔다. 자료를 다시 요청했지만, 다시 보내준 학교도 있고 안 보내주는 학교도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받아온 자료대로 교복 포장을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1개 학교는 아예 연락조차 달지 않아 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빨리 교복 분배가 끝나야 다음 학교 일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교복지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 운동이 생각뿐이었다.

다물록 순회에는 나를 포함하여 4명의 한국인 초짜 활동가들과 베테랑인 다물록 시 현지 코디네이터 제시(Jessie)가 동행했다. 제시는 JTS가 다물록 시에서 학교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고, 초보 활동가들이 다물록 시를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다른 활동가들은 각자 자료수집이나 시설 점검 등 나름의 임무가 있었고, 나는 교복지원과 전체일정 총괄을 맡았다.



든든한 안내자 제시

첫 지원 학교는 미카실리(Mikasili) 초등학교였다. 결석한 아이들이 꽤 있어서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첫 지원이라 아직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음은 발루드(Balud)학교였다. 학생 수가 무려 214명. 아이들이 많다 보니 교복 교환도 많았다. 그런데 S 치수 남학생 교복이 10벌이나 모자란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나중에 챙겨주기로 약속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너무너무 바쁜 발루드 학교 교복 교환소

인라보(Inlabo) 학교까지 첫날 일정을 마친 후 다음 날 아폴란(Apolan)학교를 방문했다. 그런데 학교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분명 선생님에게 방문 날짜까지 알려주었는데, 다시 연락을 해보니 그 전날까지 휴일이라 선생님이 집에 갔다가 지금에야 오는 길이란다. 돌이켜보니 몇 시에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지난번 문구류 지원 때 수업 시작 시각에 맞춰 갔던 것이 문제가 없었기에, 별생각 없이 그 시간에 맞춰 갔던 게 화근이었다. 총괄로서 현장과 소통을 꼼꼼히 하지 않았던 내 불찰이었다. 뒤늦게 선생님이 오셔서 그나마 조금 모인 아이들에게라도 교복을 나눠줄 수 있었다. 소박하지만 기념사진도 찍었다.



아폴란 학교에서 겨우 기념사진을 찰칵!

다음 학교는 바삭(Basag) 초등학교였다. 학교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난코스 로 꼽히는 학교다. 학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다음, 바로 교복분배를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분배하기 전에 학생들을 살펴본 나에게 곧 또다시 혼란이 왔다. 자료에 나온 대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9명의 학생 중 5명만 빼고 모두 S 치수 교복을 준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컸다. 분명히 아이들 키가 작은 것을 확인하고 S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삭 학교의 자료에는 선생님이 학생마다 정확한 치수를 기재해 줬었다. 하지만 나는 치수 옆에 참고로 적어놓은 키만 보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선생님에게 설명하려 해도 영어가 딸리니 잘 안 되고,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같이 간 활동가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고, 그럴 틈도 없었다. 이미 교복 상자는 열렸고, 아이들은 줄을 서 있었다. 단지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금한 몇 마디뿐. 무거운 마음으로 여분 교복을 풀기는 했지만, 모든 아이에게 가기에는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 교복을 받은 아이들은 기뻐했지만, 교복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서운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치수가 맞지 않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분명 교복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미안할 줄 몰랐다.

계속되는 실수에 이번 사건이 더해졌지만, 오히려 초연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굳었던 표정을 푸는 것이 우선이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했다. 교복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꼭 주겠다고 눈을 마주치며 약속했다.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내가 자료를 잘못 봤다고 했다. 다음 학교로 가는 길에는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실수에 풀이 죽어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실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실수를 지금 되돌릴 수도 없다. 침착하게 상황을 마주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신이 없던 바삭 학교의 교복지원 현장

다음 학교 키다마(Kidama)에서도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준비한 교복과 실제 필요한 교복이 달랐다. 그동안의 실수를 경험 삼아 침착하게 진행하려고 했다. 다른 활동가들도 내 실수를 받아들인 듯, 침착하게 각자의 몫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고마운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순조로웠냐고 물으면, 그냥 멧쩍게 웃을 수밖에 없다. 키타스(Kitas), 타퓨난(Tapunan), 킬라올라오(Kilaolao), 파굼퐁(Pagumpong), 블루안(Buluan)학교까지, 여전히 준비부족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마지막 날 두 번째로 방문했던 블루안 학교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 인상적이었다.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대망의 마지막 학교인 사라와곤(Sarawagon)으로 출발했다. 그동안의 실수를 돌아보고, 주변의 경치도 즐겼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준비할 땐 어떻게 해야 했는지 얼마나 점검을 해야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였다. 인라보 학교를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다. 오정심 활동가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들은 이야기다.

“아이들에게 교복이 지원되면 어때요? 좋아하나요?”

“물론이죠. 사실 아이들은 옷이 없어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오거든요. 이번에 교복을 받아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

새 교복을 입고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와 율동을 따라 하던 아이들도 생각났다. 창문 밖에서는 JTS 활동가와 더불어 많은 학부모님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항상 새 옷 한 벌 입혀



교복을 입고 율동을 하는 인라보 학교 아이들

주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을 생각하니 우리가 한 일들이, 비록 실수투성이였을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가슴 한 쪽에 뿌듯한 마음과 보람이 가득가득 차올랐다.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제시가 다물록 시 학교를 짓던 일화를 들으면서 사라와곤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학교가 코앞이었다. 그런데 학교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교실을 들여다봐도, 선생님들 숙소를 찾아가 봐도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혼란이 찾아오지도 않았다. 초짜 활동가 일행은 마을 리더를 찾아 자초지종을 들어야 했다. 마을 리더는 JTS의 방문 일정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제시가 방문 전 바랑가이 오피스(동사무소)에 방문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학교 및 마을에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축제로 인해 각자의 집으로 떠난 뒤였다. 아, 또 나의 실수. 제시만 믿고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방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아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초짜 활동가들이 나섰던 교복지원 순회는, 아직 49개의 학교 중 12개밖에 안 이루어졌다. 아직 학교가 37개나 남았다. 물론 지역의 안전 상황과 학교 운영 여부에 따라 방문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아이들이 조그만 손으로 알록달록한 공책과 연필을 쥐고 있는 모습. 반듯하게 줄 잡힌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하며, 학부모들은 창가에 웅기종기 모여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긴다. 그들은 JTS가 주고 간 선물이라 고마워했겠지만, 우리 또한 그만한 선물을 한 아름 품고 간다.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씨앗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화단 가득 피어난 꽃이었다. 같이 한 활동가들과 제시,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꽃이다.



블루안 학교 교복지원 단체사진

구호물품을 배로 옮기는 중



멈추지 않는 빛방울

- 미얀마 홍수피해 긴급구호

함께하고 글쓴이 편집부

최근 우기를 맞아 몇 주에 걸쳐 비가 내린 미얀마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1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인근에 상륙한 사이클론 코멘의 영향으로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불어난 물에 집과 농지가 모두 잠겨버린 상황에서, 우기가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얀마 정부는 홍수피해가 큰 지역을 국가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북하게 쌓여 있는 JTS 구호물품

지난해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얀마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JTS도 미얀마 홍수피해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긴급구호 준비 과정에서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먼저 지원하여 미얀마 정부가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박지나 한국JTS 대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차 긴급구호 물품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도로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겨, 차량 이동조차 쉽지 않은 현장에서 구호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현지 자원봉사단체 '노블 하트'의 회원 여러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집

1차 긴급구호 물품으로는 이재민들이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이재민 약 3,600여 가구에 쌀 61.5톤, 콩 18.05톤, 라면 10만8천 개, 멸치 젓갈 15,445개, 식용유 3,600개를 지원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겨 있어서 물품 배분을 직접 하지 못하고, 보트를 이용해 그나마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집결지까지 운반해서 쌓아놓고 주민들을 불러 배분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 논과 마당이었던 곳에 배를 대놓고 들어와 구호물품을 받아갔습니다.



지원물자를 받으러 나와 있는 주민들

2차 지원은 9월 19일과 21일,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물품 전달을 위해서 박지나 대표와 노블 하트 봉사자들은 트럭 3대에 물건을 나눠 싣고 새벽 5시부터 물살을 헤치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분명 도로가 있는 곳이지만 사방천치가 물바다가 된 상태여서, 꼼꼼히 도로를 확인하고 달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논두렁에 처박힐지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물품 배분을 위해 도착한 현장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새벽 6시부터 물품을 받기 위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온 주민들에게 가구당 쌀 30kg, 콩 5kg, 식용유 1리터를 배분했습니다. 물품을 분배하는 중에도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다행히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쌀자루와 콩 자루는 비닐로 한 겹 더 포장해서 물에 젖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그 덕분에 비록 봉사자들은 녹초가 되었지만, 빗속에서도 문제없이 배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1일 지원에는 미얀마 연예인들이 함께하여 구호물자 배분을 도왔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맑아, 별다른 문제 없이 물자 배분이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9월 19일에는 7개 마을 717가구 3,162명에게 지원물자가 배분되었고, 9월 21일에는 21개 마을 1,793가구 7,315명에게 식량을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23일에는 612가구에 추가로 구호물품을 배분하여, 총 3,122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2차 긴급구호 물품지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중에는 6,000피트 이상 고산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3차 물품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지원물자 배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안산 다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 JTS 안산 다문화센터 개원

함께하고 글쓴이 JTS 안산 다문화센터 - 이동림 활동가



지난 8월 18일 화요일, 경기도 안산시에 자리 잡은 'JTS 안산 다문화 센터'가 개원식을 했습니다. JTS 안산 다문화센터는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노동자 등,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다문화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 건강문제, 언어소통 문제, 자국 문화의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6차례 진행되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한국어 교사들의 정성 어린 수업 덕분에 참가하는 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는 병원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자원봉사해주시는 한의사 선생님도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오셔서 진료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JTS 안산 다문화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다문화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아픔을 아시아의 손으로 해결하는 JTS 이념 실현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거리모금에서 느끼는 나의 마음

함께하고 글쓴이 대구 지부 - 임주미 활동가



거리모금에 나서서 모금통을 들고, 낯선이에게 모금을 부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모금 요청에 응해 주지 않을 때의 서운함과, 다가섰을 때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사람들. 내 얘기를 듣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건 어색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랬듯이, 얘기를 듣고 모금을 하려고 마음을 내었던 사람들도,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선뜻 돈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모금 참가 횟수가 늘어나고, 마침내 거리모금 담당자가 되고 보니,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마음이 가벼워 졌습니다.

비록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도 있지만, "굶는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천원이면 두명의 아이가 한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외침에,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모금함에 돈을 넣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직접 모금함에 모금을 해줄 때, 잘생긴 청년이 선뜻 만원을 모금해 줄때는 그들의 선한

마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모금을 하는 지역이 시내 중심가이다 보니 나이드는 분들보다는, 이십대의 청년들이 대부분 모금에 동참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JTS 거리모금 활동을 시작하다

함께하고 글쓴이 목포 지부 - 남선진 활동가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던 2013년과 2014년. 급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불교대학을 다니던 2013년에 진행된 JTS 어린이날 거리모금에도, 자원활동가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을 받으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JTS 세계시민교육을 다녀왔던 분께서, 우리들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이고 지금 이대로의 삶이 너무 감사하다며, 한 번이라도 교육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다. 어른들 말씀은 가능한 듣는 게 좋다는 것이 평소 생각인지라, '그래 까짓 것 한 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토회 광주법당에서 열렸던 JTS 활동가 교육에 참가했다.

그렇게 참석한 교육에서, 광주JTS 담당자 이병호님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몇 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열정적인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살펴보게 되었다. '그래! 내가 목포JTS 담당을 해보자.' 하는 결심이

섰다. 잘 하겠다는 욕심을 내지 말고, 주어지는 상황에서 해보고자 했다.

그렇게 목포JTS 담당을 맡은 지 1년이 넘어간다. 잘 해왔을까? 그래도 일단은 도망가지 않고 꾸준히 했다. 수시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여럿이 함께 하는 힘으로 버틸 수 있었다. 매 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우리는 목포 하당 장미의 거리에서 만난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제 때 배워야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아플 때 치료받고, 제 때 배웠던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살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는 법을 못 배웠던 것이다. JTS 활동이 나에게 준 또 하나의 가르침, 바로 감사하는 법이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원만성 기금 1차 운영위원회

9월 17일, '원만성 기금' 1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원만성 기금은 원만성 고순화 할머니께서 기부하신 재산을 바탕으로 올해 초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수익금은, 인도 지바카 병원 운영과, 다문화 지원을 위한 JTS 다문화센터 운영에 사용됩니다.



2. 노희경 작가, 소설 연재로 네팔 지진 긴급구호 모금

드라마 작가 노희경 씨가 지난 8월 19일부터 블로그를 통해 본인의 작품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전편을 연재하고, 네이버 해피빈 공을 기부받아 네팔 지진 긴급구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희경 작가님은 지난 2010년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블로그에 연재하여 캄보디아 학교 짓기에 기부했으며, 마음공부 모임 '길벗'을 통해 매년 두 차례 있는 거리모금에도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h_writer)



3. 대구 경덕여고 2학년 동아리반 체험학습

9월 8일, 대구 경덕여고 동아리반 학생 5명이 JTS의 활동을 듣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JTS의 지향과 23년의 활동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후, NGO 활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China 중국



1. 중국내 복지시설 옥수수국수 지원

지난 8월, 중국 정보북리협회는 중국 옹정시, 도문시, 화룡시에 있는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옥수수 국수 및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India 인도



1. 구걸방지를 위한 청년모임

수자타 아카데미가 전정각산 앞에 터를 잡은 지도 22년이 됐지만, 여전히 관광객이 오면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느라 학교에 오지 않기도 합니다. 구걸을 막기 위해 마을 청년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왜 구걸을 하는지, 어떻게 구걸을 막을지 마을별로 토론하고 청년대표도 뽑았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 기숙학습 50일 기념식

학습에 집중하도록 기숙사에 사는 27명의 중학생과 2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무사한 것이 고마웠을 정도로 소동이 많았지만,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한국인 스태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50일 동안의 목표도 적어 보았습니다. 남은 50일도 학생들이 무사히, 열심히 공부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숙사가 바쁠 것 같습니다.



3. 병원 스태프 소풍

병원 스태프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간식을 챙겨 가야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야산에 도착하니 가파른 계단 440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일하고 라제쉬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그런 라제쉬도 씩씩하게 한 칸씩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두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니 넓은 인도의 대지와 가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의 고단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4. 염소은행, 두 번째 염소 분양

올해부터 동게스와리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염소은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분양한 염소가 낳은 새끼 중 2마리만 JTS에 반환하면, 분양받았던 이가 나머지 염소를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올 4월, 현지 스태프 7명에게 1차 분양을 했고, 9월 10일에 나머지 스태프들과 선임 교사에게 2차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염소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5. 9월 마을 쉬람단 진행

바쁜 농번기가 끝나면 각 마을에서 쉬람단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쉬람단'은 마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JTS가 자재를 지원하여, 각 마을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마을을 청소하거나 손 펌프, 물길을 주로 만듭니다. 9월에 진행한 쉬람단은 방갈비가 마을의 길 보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건너기 어려웠던 마을 길에 약 4m 폭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다리 양 옆에 흙으로 둑을 쌓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갑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만타부 교실 증축공사 준공식

2월에 시작한 만타부 학교 교실 2칸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20일, 전교생 135명과 선생님들, 리보나 군청 및 실리폰 바랑가이 직원들,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 외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학생들에게 책가방과 '더프라이미스'가 제공한 에코백을 분배했습니다. 학교 공사에 열심히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새로 지은 교실 2칸에 소형 태양광 전구도 지원했습니다.



2. 깔라수안 학교 재건축 의견수렴 및 결의안 작성

8월 말과 9월 초, 운영이 중단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을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0가구 정도의 주민이 학교 재건 공사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결의서는 지방정부와 교육부에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학급운영 규모, 교사 파견, 역할배분 및 비용분담의 내용을 담아 지방정부, 교육부, 깔라수안 마을, JTS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학교 재건축 공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 2015년 여름, 필리핀 선재수련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경쟁 없는 삶', '기슴 뛰는 삶'을 주제로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민다나오에서 '한국 대학생 선재수련'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청년들이 필리핀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려 알라원 학교 건물에 페인트칠도 하고, 알라원 다리에 상판도 다시 놓아 주었습니다. 만타부 학교에 증축하는 건물에 흙 페인트도 칠하고, 학생들과의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장도연, 뿌리양카, 박종화, 박영민, 강명희, 김미정, 심애남, 정유진, 정동표, *김윤미
필리핀	안병주, 김희자, 박영일, 원석환, 이진옥, 송우진, 홍민지, 박시현, 오정심

이복순9260 200,000	함미정 30,000	소진호 30,000	곽병진 120,000
이상복 20,000	함미정 30,000	신미경 50,000	김경미 50,000
이상현 200,000	해운대무기명 5,000	안영민 200,000	김남금 50,000
이성미 100,000	허영선 100,000	여승은 100,000	김명순 100,000
이영실 1,000,000	홍예인 500,000	여승진 100,000	김민호 10,000
이영주 50,000	황영애 10,000	원화영 30,000	김민호 10,000
이요한 20,000	황현미 100,000	웹브랜드 50,000	김성훈 50,000
이원형 20,000	후원금 100,000	위강현 100,000	김수현 200,000
이은영 10,000		윤복남 41,000	김승희 30,000
이은혜 100,000	네 팔 대 지 진	이경향 50,000	김은희 1,000,000
이인철 10,000	긴 급 구 호	이보은 77,880	김정숙 300,000
이재선 1,000,000		이상현 300,000	나경주 50,000
이정순 100,000	강민준 10,000	이숙기 54,000	남주미 50,000
이정여 5,000	곽경아 100,000	이요한 10,000	무기명 10,000
이지연 100,000	권민아 50,000	이재학 5,000,000	박경자 100,000
이태경 100,000	길벗 325,330	이정진 10,000	박동민 50,000
이학대 150,000	김경관 50,000	이해동 30,000	박상원 30,000
이학진 70,000	김경미 50,000	임명희 10,000	박완임 10,000
임명희 10,000	김남숙 25,000	임상열 10,000	박정수 50,000
임상열 10,000	김대근 1,000,000	장현주 50,000	백상봉 100,000
임순화 30,000	김명호 34,000	전민기 100,000	서광영 50,000
임순화 32,000	김수윤 10,000	전혜진 28,000	신재영 10,000
장세영 20,000	김승희 30,000	장근화 500,000	신종섭 20,000
장현련 10,000	김유진 30,000	정미진 10,000	안영애 100,000
전문표안신디문화센터	김정미 50,000	정양철 50,000	염인용 100,000
270,000	김정민 31,500	정용재 30,000	웹브랜드 50,000
전형수 100,000	김정훈 30,000	정자수 20,000	이가솔 20,000
정경아 30,000	김지현 50,000	정현욱 50,000	이미경 50,000
정세진 10,000	김현정 10,000	조용석 50,000	이미란 50,000
정수연 40,000	김희선 50,000	최정숙 250,000	이상현 200,000
정영식 50,000	나경주 100,000	하은경 30,000	이순옥 200,000
정정희 30,000	노경은 50,000	하지민 10,000	이요한 10,000
조상우 1,000,000	노희경 10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이진일 30,000
조영자 20,000	박강민 200,000	200,000	임재원 300,000
조점례 500,000	박봉진 500,000	한성욱 30,000	장순석 10,000
진형희 10,000	박세국 50,000	허황미 20,000	조수진 200,000
차지은 20,000	박완임 100,000		프롬더기든 20,000
최미금 50,000	박윤미 50,000	2015년 8월	하지민 10,000
최영미 200,000	박환선 25,000	복 한 결 연	한그루공방(김홍임)
최충환 100,000	배정은 150,000		100,000
하지민 10,000	서효재 200,000	강경림 5,000	한성욱 50,000
한영민 10,000	성현미 30,000	강미선 10,000	해대영 10,000

인도 및 제3세계

김남훈 100,000	김성경 50,000	김성훈 20,000	김승희 30,000	김현정 10,000	나경주 50,000	무기명 10,000	박상원 20,000	배정은 90,000	서광영 50,000	신재영 10,000	김경림 10,000	강미선 5,000	강민경 40,000	강인숙 10,000	경남대의원 50,000	고경녀 100,000	고정자영기극락왕생 100,000	권교종 30,000	권영세 50,000	권은하 10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일 50,000	김경희 5,000	김광철 15,000,000	김나영 200,000	김낙영 20,000	김명선 50,000	김미영 200,000	김민승 10,000	김민우 200,000	김민호 10,000	김민호 10,000	김병을 125,000	김봉덕 200,000	김서연 200,000	김선남 50,000	김성기 20,000	김성훈 50,000	김성훈 1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10,000	김수현 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TS 전체사업

2110066311 20,000	강경림 10,000	강미선 5,000	강민경 40,000	강인숙 10,000	경남대의원 50,000	고경녀 100,000	고정자영기극락왕생 100,000	권교종 30,000	권영세 50,000	권은하 10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일 50,000	김경희 5,000	김광철 15,000,000	김나영 200,000	김낙영 20,000	김명선 50,000	김미영 200,000	김민승 10,000	김민우 200,000	김민호 10,000	김민호 10,000	김병을 125,000	김봉덕 200,000	김서연 200,000	김선남 50,000	김성기 20,000	김성훈 50,000	김성훈 1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10,000	김수현 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 리 핀

김성훈 20,000	김승희 30,000	김현정 10,000	나희원 50,000	노태근 1,000,000	무기명 10,000	박형섭 50,000	배정은 90,000	서광영 5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웹브랜드 50,000	이미경 50,000
------------	------------	------------	------------	---------------	------------	------------	------------	------------	------------	------------	-------------	------------

이요한 10,000	이진일 20,000	프롬더기든 20,000	한동규 5,000	이요한 10,000	이진승 50,000	이진일 20,000	정미진 10,000	조경태 50,000	코비즈건축사행협동조합 5,500,000	프롬더기든 20,000	한동규 5,000	한상우 100,000
------------	------------	--------------	-----------	------------	------------	------------	------------	------------	-----------------------	--------------	-----------	-------------

김순화소아과 820,000	김승희 30,000	김신영 200,000	김애자/안산 100,000	김언국 240,000	김옥자 100,000	김용석 300,000	김윤분 50,000	김윤홍 280,000	김은영 20,000	김은정 210,000	김이영 100,000	김정수 50,000	김정순 50,000	김정자 5,000	김지식 50,000	김채원 100,000	김채원 100,000	김태균 300,000	김한숙 40,000	김해정 50,000	김현정 10,000	나경진 마산 50,000	남연옥 20,000	노순양 30,000	노하진 10,000	류수진 30,000	마산정덕연후원금 50,000	무상보시 450,000	문경수권원 4,860,000	민자선 30,000	박계만 10,000	박관자 10,000	박규흠 10,000	박명호 100,000	박상철 100,000	박수경 50,000	박순양 20,000	박신연명극락왕생극락 100,000	박영주 5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옥경 300,000	박옥경 600,000	박완임 10,000	박재홍 50,000	박정민마선 1,000,000	박정심 30,000	박정자 5,000	박진옥 100,000	박진희 20,000	박찬호 100,000	박화자 10,000	박희곤 100,000	반미정 30,000	베두호텔허브점 57,200	변동해 10,000	부사박정선 100,000	살래 1,210	서경희 90,000	서상일 10,000	서정 20,000	서효재 40,000	서효재 50,000	손영환가족 10,000	송대일실보살2재 1,000,000	송중수 100,000	신동근 50,000	신동현 10,000	신재영 10,000	신재은 10,000	심옥진 50,000	안병석 10,000	안병주, 김희자 20,000	안홍석 200,000	양윤석 35,000	오대환 50,000	오마라 마산 100,000	오약숙 동래 100,000	오즈약국-김환아 100,000	우원석 1,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철웅 30,000	원철웅 30,000	위민이 5,000,000	유동근 30,000	유미란 30,000	유미란 10,000	유미란 30,000	유소영 10,000	유승자 300,000	유재호(국제구호) 10,000	유화수 40,000	윤종선 500,000	은희수 708,014	이경구 30,000	이경숙 50,000	이경은 10,000	이다겸 450,000	이단형 거제 100,000	이미경 300,000	이미향 10,000	이상은 1,000,000	이상한 300,000	이상현 100,000	이소윤 10,000	이연주이예준 100,000	이영화 50,000	이요한 10,000	이원형 10,000	이인수 250,000	이인철 10,000	이정희 400,000	이준희 15,000	이해경 50,000	이현목 100,000	임양호 30,000	임양호 200,000	임영광 230,000	임월선 100,000	정미애 고성 100,000	장세영 20,000	장우영 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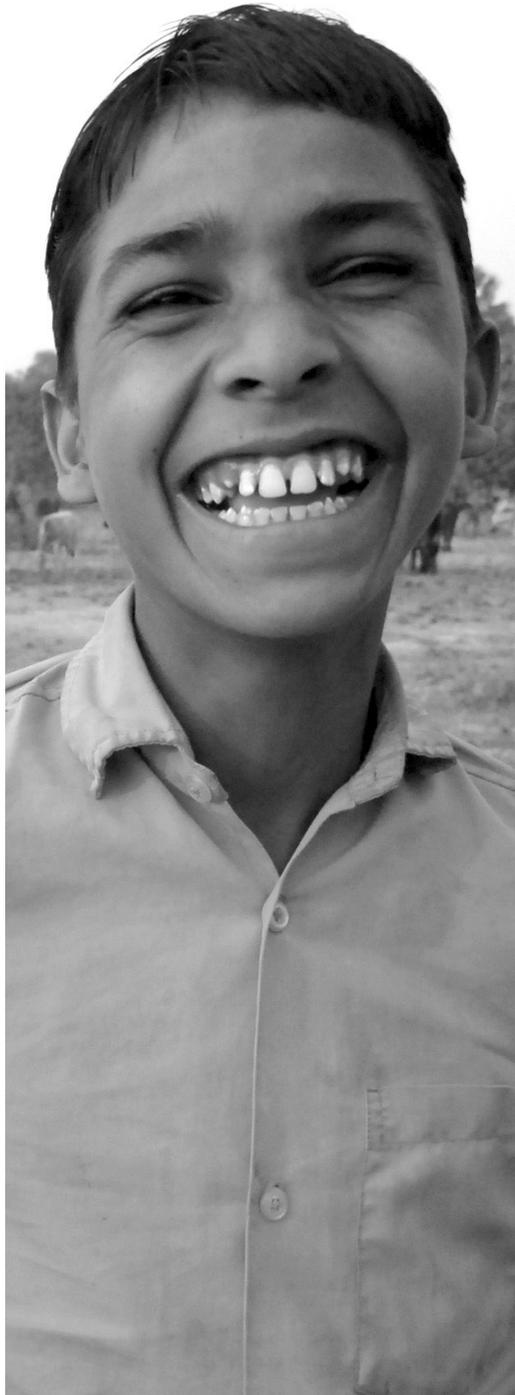
정은숙 범상스님 200,000	정한나/안산 30,000	정현련 10,000	전남북 30,000	전해준 200,000	정경아 30,000	정규환 범일법회 300,000	정명덕 100,000	정선옥 100,000	정숙경 1,000,000	정유현 20,000	정희재 30,000	조순애 52,000	조영자 20,000	조정숙 122,000	조정숙 122,000	진명희 10,000	진명희 10,000	차지은 30,000	채희숙 50,000	채희숙 100,000	천안이정옥 100,000	천윤미 30,000	최경자 50,000	최명옥 300,000	최미금 20,000	최방규 30,000	최해숙 20,000	탁경자 300,000	프롬더기든 20,000	하지민 10,000	한미영 300,000	한영민 20,000	한희수 1,000,000	함미정 30,000	허영선 100,000	허은봉 5,000	허환숙 500,000	홍인자 2,500,000	황순옥 1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네 팔 대 지 진
긴 급 구 호**

황영애 10,000	황정의 332,410	황제호 50,000	곽경아 30,000	김남금 50,000	김도영 600,000	김민호 10,000	김민호 10,000	김선남 100,000	김성훈 20,000	김승희 30,000	김운하 50,000	김은영 30,000	김재춘 100,000	김현정 10,000	나희원 50,000	무기명 30,000	박별님 30,000	박정유 80,000	서광영 50,000	서효재 30,000	서효재 50,000	서효재 50,000	서효재 50,000	서효재 5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삼백 25,000	안병석 10,000	이가솔 30,000	이미경 50,000	이병순 100,000	이상현 100,000	이요한 10,000	이주형 10,000	이지원 50,000	이진승 50,000	정교필 100,000	정현욱 3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JTS 후원금 (2015. 7. 01. ~ 2015. 8. 31.)

미 국 J T S 2015년 7월		MICHAEL W YANG	
김세희&선 매요 \$50.00	김속현 \$200.00	\$31.00	
김은희 \$15.00	김학노/김순미 \$50.00	MICHAEL W YANG	
김재평 \$15.00	노유경 \$50.00	\$62.00	
노유경 \$50.00	뉴욕법당 \$745.00	MICROSOFT	
박경배 \$450.00	무주상 \$20.00	\$200.00	
밴쿠버법당회원 \$413.65	무주상 \$37.75	SOONJIN &	
유승묵 \$20.00	무주상 \$5.00	FREDERICK C SCHEFFEL	
이동영 \$400.00	박경배 \$100.00	YOU JEONG CHA	
이영국 \$111.00	박승용 \$200.00	\$50.00	
임선희 \$50.00	박승용 \$30.00		
장시영 \$115.00	박승용 \$30.00		
조은호 \$15.00	박현수 \$60.00		
최경숙 \$50.00	박희선 \$100.00		
최만성 \$20.00	서정희 \$100.00		
최영자 \$50.00	신수지 \$1,000.00		
A&J Seattle, LLC \$200.00	유승묵 \$20.00		
Geun-Ae Park \$20.00	이동근/김소현 \$220.00		
Hyunsoo Park \$50.00	이동영 \$400.00		
Hyunsoo Park \$50.00	이명숙 \$1,000.00		
Jung Ae Jun \$30.00	이혜영 \$300.00		
Kung J Kim \$5.00	임선희 \$100.00		
Kyu H Han \$100.00	정수길/홍희선 \$100.00		
Kyung J Park \$5.00	정순영 \$300.00		
Michell Kim \$50.00	정효선 \$100.00		
Migyong Kim \$100.00	최만성 \$20.00		
NetWork forGood \$31.00	최영자(재정도행)		
Sunghee Wojcik \$200.00			
미 국 J T S 2015년 8월			
김미경 \$50.00	김세희 \$10.00		
김선희 \$100.00	LAUREN CARRE \$100.00		
	MICHAEL W YANG \$31.00		



나눔저금통 현황 (2015. 05. 01. ~ 2014. 08.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화

강화법당 110,650

거제

거제법당 103,920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139,870 경기광주법당 134,550 문형국 57,390

경산

김지연 18,080 박미애 18,730 박미애 15,700 박복주 25,050 박복주 27,660 손창원 29,730 임건화 33,210 장선숙 25,210 조영훈 17,990

경주

김미현 21,980 김지현 28,320 나점숙 25,120 손인권 30,000 양희명 62,930 원종진 24,780 이경옥 33,250 이영단 20,160 최말숙 36,650

고성

고성법당 147,180

관악

관악법당 70,000

광명

고경례 50,000 김경희 18,600 김내영 31,810 김민화 33,600 김민화(정승용) 28,590 김장성 24,440 김현영 36,720 노수정 36,020 무명 33,140 무명 15,040 박지혜 60,150 서병자 30,320 송석선 9,750 윤미정 32,550 윤준호 31,320 이명지 11,660 이병윤 88,710 이상현 11,040 이현덕 39,280 이현덕(정가성) 28,260 정혜란 31,620 정인숙 14,500 최경희 26,880 최수영 46,160

광주

광주법당 255,770 광주법당 212,010 광주법당 141,430

구로

김유진 10,480 박정하 31,540

구리

김옥민 21,260

구미

구미법당 61,440 김소희 7,610 김정화 60,500 무명 37,660 성인주 30,040 이현숙 31,520 최화심 28,260

군산

군산법당 47,990

기장

기장법당 55,460

기흥

기흥법당 130,210

김천

김지양 32,940 박세윤 24,760 송낙신 20,150 송낙신 22,730

김포

무명 59,770 전희옥 60,920

김해

배지연 25,510 이주영 39,940

남양주

광동중법당 28,550 권예진 2,600 김다원 27,080 김민재 11,200 김소민 2,360 김명신 20,910 김용숙 27,263 김자수 1,300 김하영 2,660 박정은 14,740 변예지 870 심정아 4,760 안석진 1,110 이정민 980 이주성 3,260 정복선 19,530 최서연 800 최승호 8,300 최은자 14,570 황민경 11,080 황인자 8,330

노원

김수현 9,015 노원법당 57,800 노원법당 20,000 노원중학교 1,659,130 박연숙 35,800 손정희 82,770 손정희 21,560 오미숙 26,450 오지인 17,900 오지인 1,500 이경옥 32,500 이희자 182,530

당진

김연옥 22,400 당진삼동이 54,570 이약수 45,090 정희숙 48,220

대구

공수진2개 67,690 권기문 79,910 권영순 14,620 권현주2개 41,920 김서경 23,490 김숙희 24,990 김영수 19,510 김정란 67,750 남진남,성보연 19,730 노

현숙 27,560 데레사초비센타 31,910 데레사초비센타 21,930 무명 38,120 무명 19,090 무명 37,930 무명 26,000 무명 20,010 무명 67,310 무명 15,640 무명 10,250 무명 74,700 무명 6,480 문경자 25,480 박경숙2개 68,850 박옥경 37,600 박재원 47,700 박진옥 61,460 방정희 20,500 백정국 52,820 성보연, 남진남 41,540 송승근 27,200 안기영2개 44,230 윤수정 28,440 이용석 28,030 이은경 29,020 이창희 47,800 이현호 51,250 이효정 17,700 조미희 21,180 지명자 14,900 차용백 42,390 황동희 28,900 황순남 28,890

대구남산

이경옥 56,070

대연

대연법당 61,950 대연법당 81,070 대연법당 69,200

대전

고주현 32,350 고주현 29,860 구분란 74,700 김선화 24,710 김연순 14,770 김영은 22,640 김영준 20,310 김은미2개 45,260 김을환 29,470 김을환 7,610 김태우 27,750 김현옥217,850 김현옥2개 65,000 동춘한의원 58,000 동춘한의원 72,030 동춘한의원 73,300 동춘한의원3개 165,100 무명2개 81,990 무명2개 39,780 무명7개 173,800 박경주 25,850 박경희 10,850 박민석 20,130 박민석 20,310 박민주 21,510 손은미 19,870 송복순 19,400 신선숙 17,650 안유옥 39,700 양국숙 26,550 엄금화 11,210 엄옥순 18,440 우삼이 28,580 원지현 23,970 유명훈 55,110 유미숙 23,890 유지훈 54,280 유휘준 2,900 윤광자 7,620 윤영희 25,390 윤옥수 16,570 이기자 7,740 이영희 23,230 이은숙 29,720 이효주 25,170 임란희 21,260 임만희 60,790 전경숙 6,700 정대형 18,060 정영희 31,220 정종옥 18,000 조반아희 24,400 조정숙 27,260 조정숙 27,290 최서영 22,510 최서영 10,350 최은미 21,240 표미수 19,210 허미숙 18,890 홍순덕 21,450

도봉

박동숙 31,500 백효덕 35,410 우근희 37,690 유정자 26,700 이루리 32,520 이윤기 28,230

동래

강은희 31,650 강은희 13,330 강한체 3,860 강혜원 59,240 강화근 27,130 권기윤 26,310 김삼미 8,100 김선주 19,290 김성지 33,290 김수필 17,000 김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1 3 7 - 8 7 5